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5.08.(제 7호)

## AI시대 아동 역량, 사회정서발달의 기회와 위험요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재단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

서울 3040여성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2024)

서울특별시 아동 종합실태조사(2019, 2025)

### 요약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일상화로 아동의 사회정서역량이 AI시대 필수적인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약 68%가 이미 AI 사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이창호 외, 2024), 이러한 기술 환경 변화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초기 아동기(만 6-11세)는 사회정서역량의 기초를 다지는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에는 단순한 학습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초역량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 시기 발달한 기초역량이 이후 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정책 리뷰는 아동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5점 척도)를 통해 AI시대의 주요 변화가 초기 아동기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기회요소로는 시공간 제약 없는 교육 접근성 향상(4.43점), 개별 맞춤형 감정 학습 기회 제공(3.95점), AI 스토리텔링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시나리오 경험(3.76점) 등이 확인되었다. 반면 위험요소는 스크린 타임 증가로 인한 대면 사회적 활동 감소(4.86점), 과도한 디지털 의존으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4.71점),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된 세계관 형성(4.67점), 즉각적 만족에 익숙해짐으로써 인내심 감소(4.52점) 등이 주요 항목으로 나타났다.

#### 기회요소

시공간 제약 없는 교육 접근성 향상 4.43점

개별 맞춤형 감정 학습 기회 제공 3.95점

AI 스토리텔링 기반 다양한 사회적 시나리오 경험 3.76점

#### 위험요소

스크린 타임 증가로 인한 대면 사회적 활동 감소 4.86점

과도한 디지털 의존으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 4.71점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된 세계관 형성 4.67점

즉각적 만족에 익숙해짐으로써 인내심 감소 4.52점

그림 1 | AI시대 아동 사회정서역량의 기회와 위험요소

분석 결과, AI 기술은 개별 맞춤형 학습과 글로벌 연결성 확대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면 상호작용 감소와 현실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정서발달 저해 위험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위험요소들이 대부분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회요소 활용을 위해서는 아동의 기질과 발달 수준을 반영한 개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자기주도형 AI 상호작용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I 기술의 복합적 영향을 고려할 때, 기술 도입과 함께 전통적 놀이와 대면 상호작용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아동 생활권 내 놀이 인프라 확충, AI시대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아동 AI 안전·역량 강화 체계 마련 등의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자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5년 수행한 「AI시대, 아동기 사회정서역량 발달의 쟁점과 대응 방안」(최현희, 2025)의 연구결과 일부 요약 자료임

## AI시대 사회정서역량의 중요성과 변화하는 아동 발달 환경

### ○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인간 고유 역량에 대한 관심 증대

-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 AI가 인간의 다양한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면서, 역설적으로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 역량에 대한 관심이 더욱 부각됨.

### ○ 사회정서역량의 핵심 역할과 정의

- 사회정서역량은 AI시대를 살아갈 아동에게 필수적인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음(OECD, 2021).
-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타인과의 소통·협업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으로 정의됨.
-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하는 특성을 가지며, 특히 초기 아동기(만 6-11세)는 이러한 역량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심화되는 결정적 시기임.

### ○ 아동의 AI기술 활용 및 상호작용 현황

- 아동들은 전통적인 또래·가족·학교 환경과 더불어 AI 챗봇, 메타버스, 감정 인식 기술 등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도 상호작용 하며 성장하고 있음.
-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약 68%가 AI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AI 기술이 이미 아동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줌.

### ○ 사회정서역량 발달에 미치는 이중적 영향

- 긍정적 측면에서 AI 기술은 시공간 제약을 최소화하고 개별 아동 특성에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지만, 비언어적 단서 해석 능력 저하, 대면 관계에서의 공감 능력 약화 등이 주요 위험 요소로 꼽힘.
- 특히 알고리즘 기반 정보 반복 노출로 인한 사회 현실 인식 왜곡과 부모-자녀 상호작용 시간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사회정서역량 발달에 기회와 위협요소를 동시에 내포하는 특성이 있음.

## 체계적 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 접근

### ○ 연구 방법론과 전문가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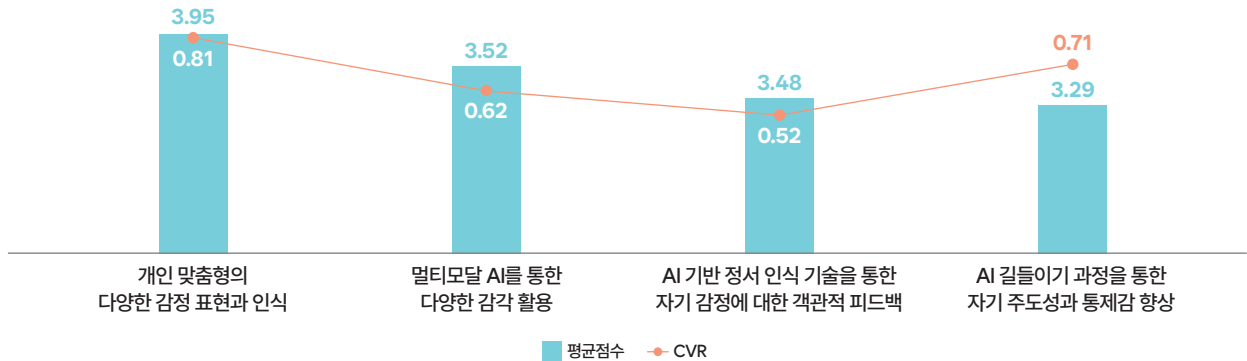
- 아동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
- AI시대의 주요 변화가 초기 아동기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

### ○ 분석 틀과 정책 방향 제시

- ① 개인, ② 환경, ③ 활동 3가지 범주에서 기회와 위협요소를 체계적으로 예측함.
- 3가지 범주는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구조화한 PEO(Person-Environment-Occupation)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개인'은 아동의 기질·정서·인지 특성, '환경'은 가정·학교·디지털 환경 등 외부 조건, '활동'은 놀이, 학습, 상호작용 등 아동이 수행하는 주요 활동을 의미함.
- 변화하는 발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개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기회요소] ① 개인: 감정 표현과 자기 인식 강화 가능

※ 5점 척도 평가, CVR(내용타당도) 0.42 이상 시 타당성 인정



| 그림 2 | 개인 측면의 기회요소에 대한 전문가 평가

○ 개별 아동 특성에 맞춘 감정 학습 기회 제공

- '개인 맞춤형 다양한 감정 표현과 인식'이 AI시대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있어 가장 긍정적인 기회요소로 평가됨 (3.95점, CVR 0.81).
- 내성적인 아동에게는 차분한 AI 캐릭터와의 대화로, 활발한 아동에게는 역동적인 게임 형태로 감정 표현을 연습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즉, AI 기술이 개별 아동의 정서적 특성에 맞춘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감정 인식과 표현 능력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중 감각을 활용한 종합적 감정 이해 능력 향상

- 최근 AI 기술은 텍스트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지, 음성, 영상 등 여러 유형의 데이터를 동시에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또는 옴니모달)<sup>1)</sup> 기능을 갖춘.
- '멀티모달 AI를 통한 다양한 감각 활용'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중 감각을 활용한 학습이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3.52점, CVR 0.62).
- 아동이 "슬퍼"라고 말하면 AI가 표정, 목소리 톤, 몸짓을 모두 관찰해 "목소리도 작아지고 어깨도 축 늘어졌네, 많이 슬픈가 보다"라며 다양한 감정 표현 방식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을 활용하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AI 피드백과 자기주도적 파인튜닝<sup>2)</sup>을 통한 자기조절 능력 발달

- 'AI 기반 정서 인식 기술을 통한 자기감정에 대한 객관적 피드백'(3.48점)도 타당한 기회요소로 평가됨. 이는 아동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 상태를 AI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어, 혹시 걱정되는 일이 있니?"와 같이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AI 길들이기 과정을 통한 자기 주도성과 통제감 향상'(3.29점) 역시 긍정적 요소로 평가됨. 이는 직접 AI에게 "나와 대화할 때는 이렇게 해줘"라고 설정을 조정하면서 주도권을 갖는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 AI 기술을 적절히 활용할 때 아동의 자기인식과 자기조절 능력 발달에 도움을 줄 가능성을 보여줌.

1)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여러 형태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뜻함

2) AI 파인튜닝이란, 이미 훈련된 범용 AI 모델(예. 챗GPT)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 목적이나 업무에 맞게 맞춤형으로 재학습시키는 기법을 의미함. 파인튜닝 기술의 발전으로 사용자는 자신의 필요와 가치에 맞게 AI를 조정할 수 있게 됨

[기회요소] ② 환경: 접근성 향상과 글로벌 연결성 확대

※ 5점 척도 평가, CVR(내용타당도) 0.42 이상 시 타당성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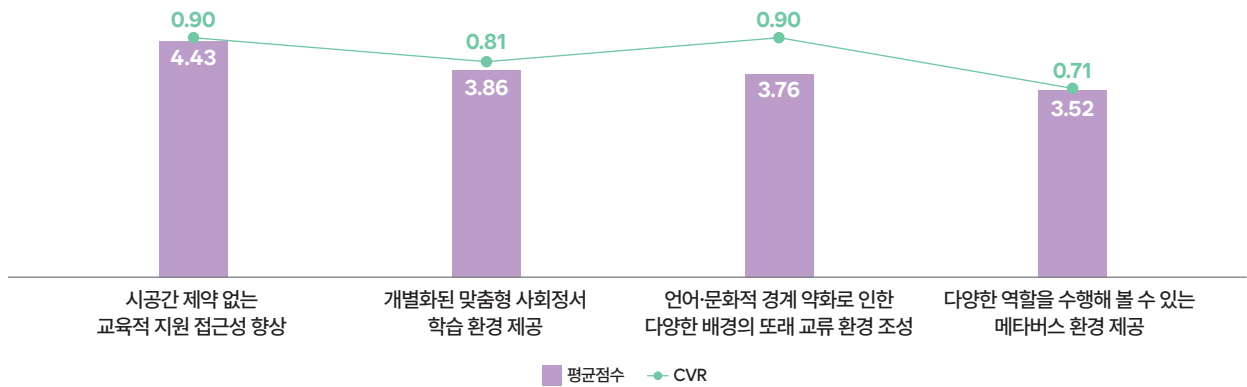


그림 3 | 환경 측면의 기회요소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지리적·시간적 제약 없는 균등한 발달 기회 제공

- 환경 측면에서 '시공간 제약 없는 교육 지원 접근성 향상' 요소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함(4.43점, CVR 0.90).
- AI 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병원에 입원한 아동도 집에서 언제든지 AI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고,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도 필요할 때마다 감정 조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는 지리적, 시간적 제약을 넘어서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발달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을 시사함.

○ AI 번역 기술을 통한 글로벌 또래 교류 활성화

- AI 기술은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문화적 맥락과 뉘앙스까지 고려한 번역을 제공하며, 실시간 음성 번역을 통해 한국 아동과 외국 아동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됨. 이를 통해 아동들은 가상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서로 다른 문화적 관점을 직접 경험하고 공감 능력을 기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언어-문화적 경계 약화로 인한 다양한 배경의 또래 교류 환경 조성'이 높은 내용타당도를 보임(3.76점, CVR 0.90). 즉, AI 기술을 통해 글로벌 연결성이 증진됨으로써 아동은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이야기와 상황을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과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AI 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형 학습 환경 구축

- '개별화된 맞춤형 사회정서 학습 환경 제공' 요소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됨(3.86점, CVR 0.81).
- AI 기술이 발전하면 파인튜닝과 멀티모달 기능을 활용하여 아동의 성격과 발달 수준에 맞춰 학습 속도와 방식을 조절해 주는 것이 가능함. 예를 들어 AI는 개별 아동의 학습 속도, 관심사,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각자에게 최적화된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 또한 사회정서적 요구에 맞춘 개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정서적 지원의 효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기회요소] ③ 활동: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상호작용 기회 확장

※ 5점 척도 평가, CVR(내용타당도) 0.42 이상 시 타당성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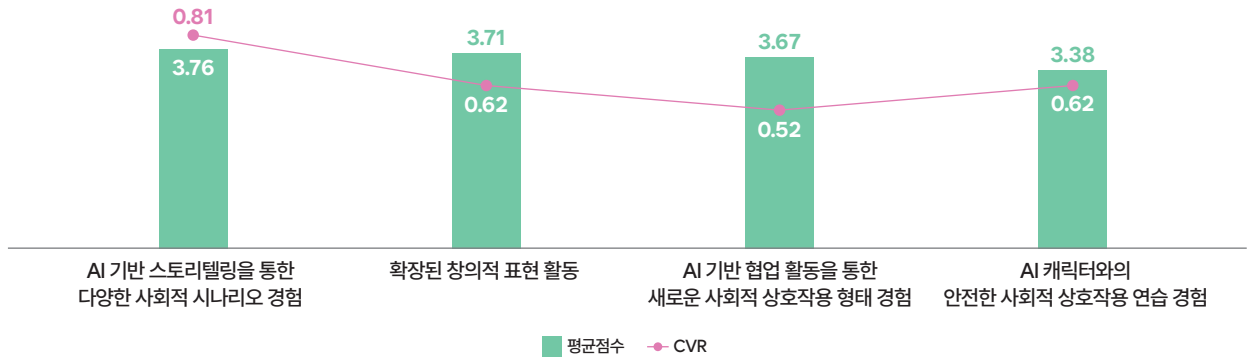


그림 4 | 활동 측면의 기회요소에 대한 전문가 평가

○ AI 스토리텔링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시나리오 학습

- 활동(경험) 측면에서 'AI 기반 스토리텔링을 통한 사회적 시나리오 경험'이 가장 긍정적인 기회요소로 확인됨(3.76점, CVR 0.81).
- 이는 아동이 친구와의 갈등, 새로운 환경 적응, 협력이 필요한 상황 등 실제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AI 스토리텔링을 통해 안전하게 간접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함. 예를 들어 AI가 제시하는 "새 학교에 전학 온 친구를 도와주기", "의견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하기" 등의 시나리오를 통해 아동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의 적절한 반응과 감정 조절 방법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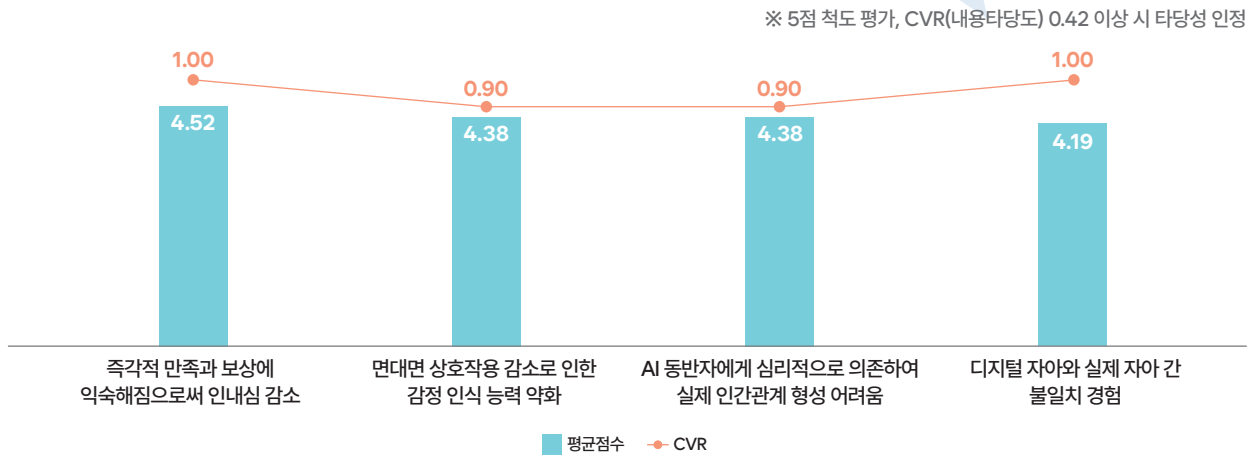
○ AI 활용 다양한 표현과 협업을 통한 새로운 상호작용 경험 확대

- '확장된 창의적 표현 활동'(3.71점, CVR 0.62)과 'AI 기반 협업 활동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 형태 경험'(3.67점, CVR 0.52)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AI 기술이 창의성과 협력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냄.
- AI와 함께 창작 활동을 하거나, 가상 환경에서 전세계 또래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아동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AI 캐릭터 상호작용의 한계와 보완 필요성

- 'AI 캐릭터와의 안전한 사회적 상호작용 연습 경험'(3.38점, CVR 0.62)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함.
- 이는 AI와의 상호작용만으로는 실제 대인관계 기술 발달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임. 즉, AI 기반 사회적 경험이 현실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으며, 보완적 역할로 활용되어야 함을 시사함.

[위험요소] ① 개인: 인내심 감소와 관계 형성 능력 등 저하 우려



| 그림 5 | 개인 측면의 위험요소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즉각 보상 시스템으로 인한 인내심과 끈기 발달 저해

- 개인 측면에서는 '즉각적 만족과 보상에 익숙해짐으로써 인내심 감소'(4.52점, CVR 1.00)에 대하여 가장 높은 위험성이 확인됨.
- AI가 질문하면 즉시 답을 주고, 게임에서도 바로 보상을 제공하는데,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아동들은 시간이 걸리는 일을 참고 기다리거나 노력해서 성취하는 경험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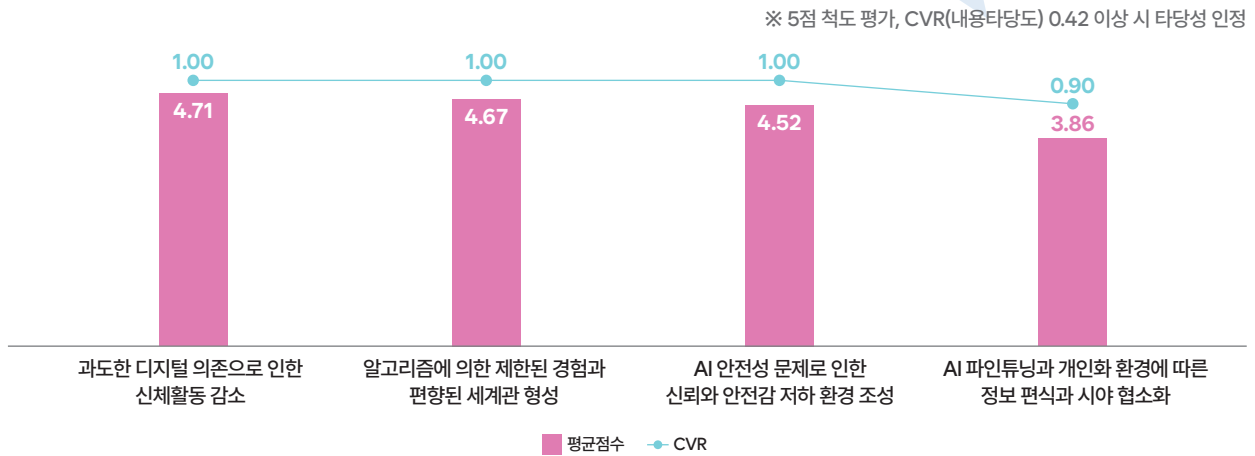
○ 대면 상호작용 감소로 인한 감정 인식과 관계 형성 능력 약화

- '면대면 상호작용 감소로 인한 감정 인식 능력 약화'(4.38점, CVR 0.90)와 'AI 동반자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여 실제 인간관계 형성 어려움'(4.38점, CVR 0.90)은 동일한 점수의 위험도로 평가됨.
- 친구의 미묘한 표정 변화나 목소리 톤으로 기분을 알아차리는 능력,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방법 등은 실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배울 수 있는데, AI와의 상호작용에만 익숙해지면 이러한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디지털 자아와 실제 자아 간 괴리로 인한 정체성 혼란

- '디지털 자아와 실제 자아 간 불일치'(4.19점, CVR 1.00) 요소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타남. 메타버스에서의 멋진 아바타와 현실에서 나의 모습 간 "진짜 나는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위험요소] ② 환경: 디지털 의존과 편향된 정보 증가



| 그림 6 | 환경 측면의 위험요소에 대한 전문가 평가

○ 디지털 의존으로 인한 신체 놀이 감소와 사회성 발달 저해

- 환경 측면에서 '과도한 디지털 의존 환경 조성에 따른 신체활동 감소(4.71점, CVR 1.00)가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인 것으로 파악됨.
- AI 기술을 사용하느라 밖에서 뛰어놀거나 친구들과 몸을 움직이며 하는 놀이 시간이 줄어들면, 아이의 체력 발달뿐만 아니라 초등 저학년 시기 몸을 통해 배우는 사회성 발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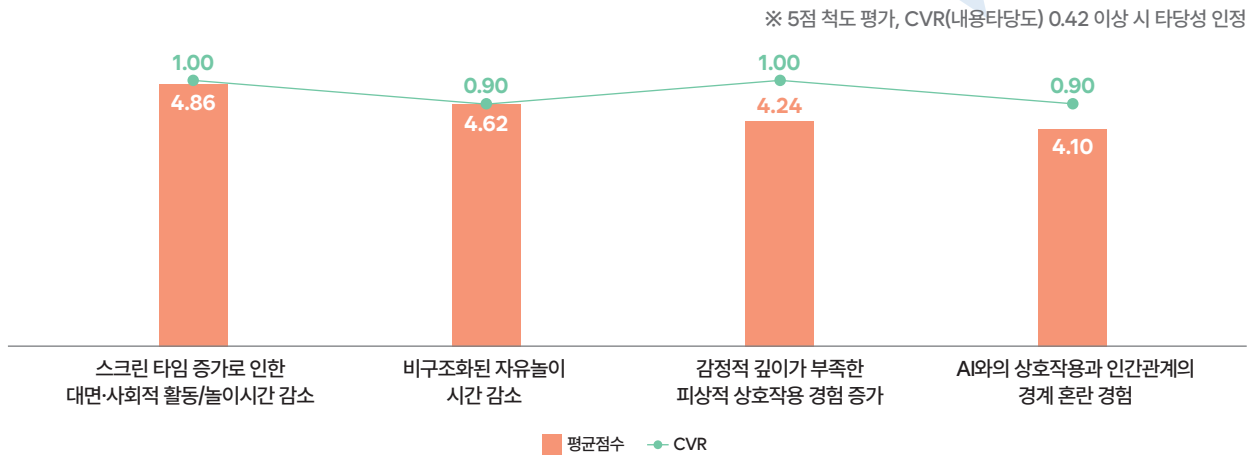
○ 알고리즘 편향에 따른 사회·인지적 제약과 관점 협소화

- '알고리즘에 의한 제한된 정보 제공 환경으로 편향된 세계관 형성'(4.67점, CVR 1.00)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AI가 취향에 맞는 콘텐츠만 지속 노출함에 따라 다양한 관점이나 새로운 것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함.
- 'AI 파인튜닝과 개인화 환경에 따른 정보 편식과 시야 협소화'(3.86점, CVR 0.90)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었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AI 서비스의 장점이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제한하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임. 이는 개인화의 이점과 다양성 경험 제한이라는 위험 사이의 균형점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함.

○ 안전성 문제로 인한 신뢰감 저하

- 'AI 안전성 문제로 인한 신뢰와 안전감 저하 환경 조성'(4.52점, CVR 1.00)에 대한 이슈도 제기됨. 딥페이크 등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무엇이 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험요소] ③ 활동: 스크린 활동 증가와 현실 경험 감소



| 그림 7 | 활동 측면의 위험요소에 대한 전문가 평가

○ 스크린 사용 경험 증가로 인한 실제 사회적 활동 및 자유놀이 기회 감소

- 활동·경험 측면에서 '스크린 타임 증가로 인한 대면 사회적 활동 및 놀이 시간 감소'(4.86점, CVR 1.00)와 '비구조화된 자유놀이 시간 감소'(4.62점, CVR 0.90)가 가장 높은 위험 점수를 기록함.
- 이는 AI시대 스크린 사용 경험 증가로 인해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거나 함께 블록을 쌓으며 자연스럽게 배우는 양보, 협력, 갈등 해결 등의 사회적 기술을 익힐 기회가 줄어든다는 의미임. AI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실제 친구들과 어울리며 몸으로 부딪치고 감정을 나누는 경험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시사함.

○ 인간관계의 질적 저하

- '감정적 깊이가 부족한 피상적 상호작용 경험 증가'(4.24점, CVR 1.00)에 대한 우려도 부각됨.
- 이는 AI와의 단순한 상호작용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복잡하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함. 친구와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 서로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경험 등이 부족해져 표면적인 관계에만 머물 위험이 제기됨.

○ 현실과 가상 간 경계 혼란

- 'AI와의 상호작용과 인간관계의 경계 혼란 경험'(4.10점, CVR 0.90)에 대한 위험성도 확인됨.
- 초등 저학년 아동이 "AI 친구는 항상 내 말을 들어주는데, 왜 실제 친구는 그렇지 않지?"라고 생각하며 현실적이지 않은 기대를 갖게 될 문제가 예상됨. 항상 긍정적으로만 반응하는 AI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아동은 현실 세계의 인간이 때로는 화를 내거나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정책 시사점

### ○ 위협요소 우선 대응의 필요성 대두

-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 위협요소들이 기회요소보다 현저히 높은 평균 점수(대부분 4점 이상)와 내용타당도를 기록함. 특히 스크린 타임 증가로 인한 대면 사회적 활동 감소(4.86점), 과도한 디지털 의존으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4.71점), 알고리즘에 의한 제한된 경험과 편향된 세계관 형성(4.67점) 등이 심각한 위협요소로 평가되어 AI 기술 도입 시 위협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

### ○ 기회요소 활용을 통한 아동의 사회정서역량 지원

- 기회요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의 이점을 기반으로 아동 발달 단계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단순 기술 제공을 넘어 기질, 발달 수준, 감정 표현 방식 등을 반영한 개별 맞춤형 사회정서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AI의 정서 피드백과 상호작용 경험이 자기인식 및 자기조절 능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반응 제시가 아닌 아동 주도의 설정과 조정, 응답 경험이 포함된 자기주도형 AI 상호작용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 ○ 인간 중심 가치 지향 강조와 전통적 아동 발달 경험 재평가

- AI 기술의 개인화와 자동화가 심화될수록 인간 고유의 감정적 연결과 협력 능력의 중요성이 커짐. AI는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예측 불가능한 또래 반응이나 집단 내 감정 상황은 대체할 수 없음.  
- 특히 아동의 관계 역량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발달하므로, 비구조화된 놀이, 대면 상호작용, 자연 기반 활동 등 전통적 경험의 가치가 AI시대에 더욱 부각됨. AI는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

## 정책 지원 방향

### ○ 아동 생활권 내 놀이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관계망 지원

- 스크린 타임 증가로 인한 대면 사회적 활동 감소가 최고 위험도로 평가된 만큼, 일상 놀이 인프라 확충과 아동 놀이·사회정서 지원 인력 배치를 통해 자연스러운 사회정서발달 기회를 보장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과 성인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연대감 형성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

### ○ AI시대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응하고, 동시에 AI시대의 기회요소를 활용하기 위한 사회정서역량 강화 콘텐츠 개발이 시급함. 이를 위해 초등 저학년 아동의 인지발달 수준과 AI 기술 이해도, 교사의 AI 리터러시 역량에 대한 기초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온·오프라인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 아동 AI 안전·역량 강화 체계 마련

- AI 안전성 문제, 과도한 디지털 의존 등 위협요소에 대한 높은 우려는 아동을 새로운 기술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안전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시사함. 이에 따라 '아동 AI 안전·역량 강화 센터'의 신규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소 대응은 물론, 디지털 시민성, 자기조절력, 감정 인식 능력 등 아동의 주체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요구됨.

작성자: 최현희 / 정책개발실 아동보육정책팀

## 참고문헌

이창호, 모상현, 배상률, 이세영 (2024).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OECD (2021). Beyond academic learning: First results from the survey of social and emotional skills. OECD Publishing.